

# 〈숙영낭자전〉의 聖俗 갈등과 그 의미

이지하 \*

- 1. 문제제기
- 2. 聖俗의 갈등 양상
  - 1) 숙영의 정체성
  - 2) 세속적 가치의 대변자 백상공
- 3. 聖俗의 매개항으로서의 '사랑'과 그 한계
- 4. 聖俗 갈등과 존재론적 고뇌
- 5. 나가며

## 1. 문제제기

〈숙영낭자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애정소설이다.<sup>1)</sup> 김태준을 비롯하여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작품의 경개에 대한 소개와 작자와 창작 연대에 대한 탐색이 시작된 이래<sup>2)</sup>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김일렬에 의해서이다. 그는 박사논문을 통해 이 작품이 부

---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1)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 경판 28장본의 간기에 '咸豐庚申'이라고 기록된 것을 듣다. 이를 철종 11년인 1860년으로 보고 이 시기에 작품이 상업적으로 판각 출판되기 위해서는 창작 후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이 필요했으리라는 것을 감안하여 창작시기를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추정한 것이다(김일렬, 1999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7면).
- 2) 김태준은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 세종조의 안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숙종에서 영종조 사이에 안동 인근의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김태준, 1989 『조선소설사』, 예문, 171-172면).

부 간의 애정이 효라는 중세적 관념에 희생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도선적 환상의 이면에 당대의 생동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해석을 내놓은 후<sup>3)</sup> 이본, 역사적 현실, 인접 장르로의 전환 등을 다룬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숙영낭자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행본을 출간하여 이 작품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다.<sup>4)</sup> 이후 이 작품의 다양한 이본 상황 및 설화, 판소리, 서사민요 등과의 관련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었으며,<sup>5)</sup> 최근에는 미시적 차원에서 작품의 내적 분석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sup>6)</sup>

본 연구 역시 〈숙영낭자전〉의 내용과 의미 탐색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 작품은 천상의 선관과 선녀였던 주인공들이 남녀 간에 희롱한 죄로 지상에 적거하여 인연을 이어가는 서사 속에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남녀의 결연을 운명적인 것으로 미화하는 고전소설의 관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별반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결합으로 천상의 인연을 완성하는 것이 적강형 소설의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할 때 〈숙영낭자전〉의 서사는 그 공식을 충실히 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롭게 음미해야 할 만한 요소들을 내

3) 김일렬, 1984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효와 애정의 대립: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김일렬, 1999 앞의 책.

5) 성현경, 1995 「숙영낭자전과 숙영낭자가의 비교」 『판소리연구』 6: 전용문, 1995 「숙영낭자전 연구: 이본간의 대비를 중심으로」 『논문집』 27, 목원대학교; 김종철, 1996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윤분희, 1996 「박록주 창본 숙영낭자전 연구」 『어문논집』 6, 민족어문학회; 문복희, 1999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어문연구』 102; 강윤정, 2005 「박동진 창본 숙영낭자전 연구」 『구비문학연구』 20; 류호열, 2012 『숙영낭자전 서사 연구: 설화·소설·판소리·서사민요의 장르적 변모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현, 2014 『〈숙영낭자전〉의 이본과 공간 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선현, 2011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김미령, 2013 「숙영낭자전 서사에 나타나는 대중성」 『남도문화연구』 25; 정인혁, 2013 「〈숙영낭자전〉의 ‘몸’의 이미지」 『한국고전연구』 28; 서유석, 2014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 숙영낭자전의 ‘옥련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8, 중앙어문학회; 김미령, 2014 「‘금기’코드로 풀어보는 〈숙영낭자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한국언어문화』 90; 이유경, 2014 「‘낭만적 사랑이야기’로서의 〈숙영낭자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8.

포하고 있다. 주인공 백선군과 숙영이 천상의 인연을 계기로 지상에서 부부의 연을 맺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전소설의 여주인공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부과되었던 여성수난담의 하나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고난을 통과한 여주인공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과는 달리 숙영의 경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채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여성수난담의 공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숙영의 재생과 승천으로 작품이 종결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숙영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伸冤의 의미를 지닐 뿐 현실적 맥락에서의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숙영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인 시아버지 백상공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勸善懲惡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모해자인 매월과 돌쇠를 제거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악의 징치를 구현하고 있으나 기실 이들은 작품 속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작품의 갈등구도와 그 의미에 대해 권선징악의 논리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숙영낭자전〉을 관통하는 대립구도는 숙영과 시아버지 백상공 사이에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7)</sup>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는 숙영과 백상공으로 표상되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숙영은 천상적 존재로서 세속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에 비해 백상공은 지상의 가치에 입각하여 세속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상반된 가치를 지닌 두 사람이 이들의 남편이자 아들인 백선군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숙영낭자전〉의 핵심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상적 존재인 숙영과 세속적 존재인 백상공의 대립을 聖과 俗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와 이를 가로막는 장애의 이면에 聖俗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이기

7) 선행연구 중에서도 작품의 핵심 갈등을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억압과 이에 대한 여성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경우 이 관계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현, 2011 앞의 논문; 이유경, 앞의 논문). 이들이 여성수난을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한 것은 타당하고 공감할 만한 것이다. 단 본고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숙영과 백상공의 관계에 내재된 세계관의 대립을 통해 당대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聖과 俗은 일상성과 비일상성, 저속함과 고상함 등으로 구분된다.<sup>8)</sup> 그러나 聖俗의 구분이 반드시 특정 종교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초월성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초월성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범종교적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 고대의 신화적 인식에서부터 불교, 유교, 도교, 민속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그러한 신성성을 상정하여 왔는데 이를 대표하는 관념으로 ‘하늘(天)’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전소설은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천상의 신이성을 전제하고 聖과 俗의 이원적 대립구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성스러움의 주체인 하늘 곧 천상은 신성한 공간으로서 기원의 대상이자 복을 내려주는 至高神으로 인식되었다.<sup>9)</sup> 일찍이 이상택은 종교적인 신비주의의 질서 아래 있는 신성사회와 합리성, 실리성, 실용성이 바탕이 되는 세속사회의 대립 양상이 고전소설 속에서 구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천상적, 자연적, 관념적, 이상적, 신비적인 것들을 신성성으로, 지상적, 인위적, 물질적, 현실적, 합리적인 것들을 세속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sup>10)</sup>

이상을 고려할 때 聖과 俗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聖은 신성과 초자연의 영역에 관계되며 절대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면 俗은 일상의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숙영낭자전〉에는 이러한 聖俗의 가치 대결이 인물들에 투영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이 낭만적인 차원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적 고민을 담아내는 가운데 비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을 낭만적 사랑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심각한 세계인식이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다.

〈숙영낭자전〉은 다양한 이본이 남아있으며,<sup>11)</sup> 그 중 숙영의 장례를 그리는 필사본 계열과 장례가 생략된 채 재생이 이루어지는 경판본과 활자본 계열이 대별

8) 이상익, 1994 「유교에 있어서의 聖과 俗」 『종교연구』 10, 55면.

9) 이명현, 2004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면.

10) 이상택, 2003 「고전소설의 세속화 과정」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I, 새문사, 59-63면.

11) 〈숙영낭자전〉의 이본은 필사본 150종, 경판본 3종, 활자본 4종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선현,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22면).

된다.<sup>12)</sup> 이 외에도 재생 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임소저와 선군의 혼인 여부 등 결말부의 다양한 차이에 따라 이본 간에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본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전형성을 염두에 두고 교감 작업을 수행한 선행연구의 도움에 힘입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13)</sup> 한편 결말부를 중심으로 이본 간 聖俗의 관계 양상을 달리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성을 중심으로 대표적 이본들과 그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기로 한다.

## 2. 聖俗의 갈등 양상

〈숙영낭자전〉은 표면적으로는 적강 후 천상의 인연을 완성해가는 숙영과 백선군의 사랑이야기로 파악되지만 실제 작품의 핵심 서사는 지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백상공과 천상의 존재인 숙영 사이의 긴장 관계와 대립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을 숙영과 媚父인 백상공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철저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아버지 백상공과 천상적 존재인 며느리 숙영 사이에는 애초부터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백선군의 애정에 의해 미봉되었던 양자 사이의 갈등이 入科로 인한 선군의 부재 시점에 극대화됨으로써 벌어진 비극적 서사가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이므로 숙영과 백상공 두 사람을 통해 이 작품이 문제시하는 국면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김선현, 2014 「〈숙영낭자전〉 이본 현황과 변모 양상 연구」『어문연구』 42권 2호, 130면.

13) 이상구, 2010 『원본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를 주 분석 자료로 삼으며, 이를 현대 어역한 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를 보조자료로 참고하여 본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현대어역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원문의 경우 필사본의 특성상 미상인 부분이 많고, 고어나 사투리, 자의적 표기법 등으로 인해 따로 해석이 필요할 정도이므로 작품의 의미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대어역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 1) 숙영의 정체성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숙영낭자는 고전소설 속에 흔히 등장하는 여타의 적강형 인물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숙영과 백선군은 천상의 선녀와 선관으로서 서로 희롱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귀양 온 존재들이다. 백선군이 백상공의 집에 점지되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기남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적강형 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 숙영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 그저 선군과 희롱한 죄로 옥연동에 귀양 와 있는 것으로 언급될 뿐이다. 숙영은 인간으로의 탄생 과정을 밟지 않은 채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숙영에게는 지상의 혈육, 즉 인간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군이 인간세상에서 백상공의 아들이 됨으로써 백씨 성을 부여받은 것과 비교하여 숙영의 경우 성씨 없이 그저 숙영이라고만 불리는 것이 바로 지상의 뿌리를 지니지 못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sup>14)</sup> 그러나 그만큼 숙영이 세속인과는 다른 특성과 지향을 지니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숙영은 천상의 존재로서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으로의 환생과 더불어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선군과 달리 숙영은 천상에서의 인연을 기억하고 있으며 꿈을 통해 선군의 삶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인연을 활기시킨다. 선군이 천정인연을 모른 채 다른 가문에 구혼하려 하자<sup>15)</sup> 숙영이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인연을 일깨운다. 숙영은 총 5번에 걸쳐 선군의 꿈에 현현하는데 두 사람의 천정인연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꿈속에서 자신을 본 후 상사병에 걸린 선군을 돋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숙영은

14) 숙영의 이와 같은 처지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김일렬, 1995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 숙영낭자전의 경우」 『여문론총』 29, 33면 “낭자의 가문은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자랑스러운 선조를 내세울 만한 처지도 못 되고 출세를 통해 가문의 창달을 꿈꾸지도 않는 지체 낮은 부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인혁, 앞의 논문, 191면 “숙영은 인간 사회의 공식적인 질서가 부여하는 지위나 신분도 확인되지 않은 소위 ‘근본 없는 여자’일 뿐이다.”

15) 이는 백선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상공 부부가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고 세속적 가치에 따라 다른 혼처를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불로초, 불사초, 만병초 등 세 가지의 선약과 선군 집안의 가세를 일으킬 금동자와 자신의 화상을 전달하는 등 초월적 능력을 발휘한다. 꿈을 통해 현실계에 개입하는 것부터가 현실 논리를 뛰어넘는 신이한 능력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신기한 물건들을 전달하여 선군 집안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 숙영은 천상인 물로서의 초월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숙영의 초월적 능력이 선군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영험성을 발휘할 뿐 정작 선군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약들이 선군의 상사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숙영에 대한 선군의 사랑이 그만큼 절실한 것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약을 먹어보았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는<sup>16)</sup> 것은 숙영의 천상적 능력을 포함하여 천상으로 대표되는 초월적 힘의 영향력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세계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동원될 뿐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숙영이 선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월을 동첩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것 역시 문제적이다. 천상인 숙영이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존중하여 동첩을 제시하는 것은 천상적 존재가 세속적 욕망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세속화의 영향력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聖의 영역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인간의 세속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후 숙영은 선군의 구애에 못 이겨 3년 남은 금기의 시간 제약<sup>17)</sup>을 깨고 그의 아내가 되어 지상의 삶에 편입함으로써 온전히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선군과의 육체적 결합 후 숙영이 옥연동에서의 수행이 더 이상 의미 없다며 선군을 따라 속세로 내려오는 과정은 천상인인 숙영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숙영이 선군의 아내가 되어 인간사회에 편입한

16) 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18면.

17) “우리 두 사람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앞으로 삼년 뒤에 인연을 맺게 되어 있나이다. (중략) 그러나 만일 제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지금 몸을 허락하으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리이다. 그러니 어려우시더라도 삼년만 참고 기다려주시옵소서 (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22면).”

이후 보여주는 모습은 가부장제 하의 혼한 세속 부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숙영은 선군의 자녀들을 낳고 시부모를 모시며 세속률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라는 부모의 요구에 반발하는 선군을 설득하여 세속의 공명을 통해 효를 행하라고 권유하는 모습 속에는 세속의 삶에 적응하고자 하는 숙영의 노력이 잘 담겨있다.<sup>18)</sup>

이처럼 세속화되었던 숙영의 초월성이 다시 발휘되는 것은 정절 모함을 받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옥비녀를 바위에 꽂는 사건과 자결 후에 가슴에 꽂힌 칼이 빠지지 않거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정도이다.<sup>19)</sup> 그러나 이 사건들은 숙영의 결백과 억울함을 강조하는 데 일조할 뿐 천상인으로서 숙영이 지닌 신성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세속의 논리 앞에 천상적 존재인 숙영은 한없이 무력할 뿐이다. 정절 의심을 받아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까지 저버리고 자결을 불사하는 태도는 세속적 이념에 깊이 침운된 상충의 여성 형상과 다름없다. 게다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임해서도 숙영은 끝내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남편에게 원통함을 풀어 달라는 유언을 남김으로써 선군의 인간적인 해결책에 기대고 있다. 자신은 원귀가 되어 선군의 꿈속에 등장할 뿐이다.

결국 숙영이 선군의 범인 색출에 의해 한을 풀고 되살아나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신이성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행복한 결말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낭만적 결구 이면에서 포착되는 비극적 분위기를

18) “대장부가 세상에 입신출세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며, 조상을 빛내는 것이 뜻밖의 일이옵니다. 그런데 이제 낭군이 저를 잊지 못해 과거시험을 보려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공명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중략) 낭군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잠깐 접으시고 서울에 올라가 이번에 장원급제를 하시옵소서. 그러면 부모님께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제 마음 또한 더없이 상쾌할 것이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만일 낭군께서 과거를 보려가지 않으신다면 저는 차마 민망하여 더 이상 살기 어려울까 하나이다(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26면).”

19) 선군이 집을 비운 사이 숙영은 매월의 모함으로 인해 외간 남자와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치욕스러워하다가 자결하고 만다. 이유경은 이에 대해 “남편만을 사랑하는 여인을 허술한 정절 모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남편의 부재시 시집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결혼제도의 억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이유경, 앞의 논문, 176면).

무시할 수 없다. 숙영의 재생과 천상으로의 복귀가 결코 영광스러운 복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져 숙영은 세속의 부조리를 이겨내지 못한 채 폐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숙영의 승천은 여느 여주인공들이 수난을 통과한 후 현실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리다가 승천하는 경우와 다르다. 숙영은 겨우 현실의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 세속의 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누릴 마음도 없는 것 같다. 결말의 승천 부분은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sup>20)</sup> 숙영이 재생 후 곧바로 승천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옥연동<sup>21)</sup>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후 승천하는 경우도 세속의 공간이 아니라 탈속적 공간에서 현세의 삶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지상의 세속적 삶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sup>22)</sup> 그 점에서 숙영의 삶은 천상인이 지상의 삶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세속적 부조리에 폐배하여 결국 천상으로 되돌아가는 궤적을 그린다고 하겠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숙영은 사랑에 대한 미련으로 세속적 삶에 동화하고자 하다가 실패한 초월적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의 삶에 온전히 편입하기 위해 선군에게 세속적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권유했던 숙영은 결국 정절을 내세운 세속률에 의해 단죄당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숙영이 세속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聖俗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세속적 힘이 우위

20)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은 숙영의 거취 문제를 두고 크게 다섯 계열로 나뉜다. 첫째, 재생한 숙영이 곧바로 선군과 아이들을 데리고 승천하는 경우, 둘째, 재생 후 숙영은 옥연동에 머물고, 선군이 부모와 아내 사이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승천하는 경우, 셋째, 재생 후 숙영이 선군과 집에 돌아와 부모를 모시다가 승천하는 경우, 넷째, 재생한 숙영과 선군, 임소저가 백상공 부부를 모시다가 셋이 함께 승천하는 경우, 다섯째, 숙영의 재생 내용이 없이 장례로 끝나는 경우 등이다(김선현, 2014 앞의 논문, 130-133면). 이 중 숙영의 재생을 그리지 않는 유일한 이본인 다섯째(김광순 24장본)에 대해서는 김일렬이 그 비극성과 작품의 가치에 대해 논한 바 있다(김일렬, 1999 「비극적 결말본 〈숙영낭자전〉의 성격과 가치」『어문학』 66).

21) 이본에 따라서는 죽립동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

22) 위의 셋째와 넷째의 경우처럼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승천하는 내용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백상공부부에 대한 효성이 강조되고 임소저와의 중혼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유교적 가부장제의 논리에 입각한 개작으로서, 경판본이나 활자본의 경우 남성독자들을 염두에 둔 방각업자들의 개작으로 보이고 필사본의 경우에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본으로서 활자본과 동일한 모본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숙영낭자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김선현, 2014 앞의 논문, 146-148면).

를 점하며 초월성, 환상성, 신이성 등으로 표상되는 신성적 가치를 압도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세속적 가치의 대변자 백상공

〈숙영낭자전〉의 남주인공인 백선군의 아버지이자 여주인공 숙영의 시아버지인 백상공은 천상의 인연과 애정을 중시하는 아들 부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세속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백상공이 하늘에 기자치성을 들여 아들을 낳았고, 선녀로부터 아들의 적강 사연을 들었으며, 옥황상제가 지시한 숙영과의 삼생연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존재와 그에 의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백상공이 천상의 도움을 받아놓고도 천상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백상공은 병조참판의 직책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지만 소인의 참소로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쓴 결과 부를 축적한다.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음을 한탄한 부인이 기자치성을 드리자고 권유하자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sup>23)</sup> 못이기는 척 부인의 뜻에 따른다. 이때 백상공이 치성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신성한 힘의 개입을 믿고 따르는 부인 정씨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백상공의 경우 초월적 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 요컨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수양과 성실을 중시하여 최선을 다하는 儒者의 태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교적 사유에서는 聖과 俗을 근원적으로 이원화시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의 은총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적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정성을 다 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sup>24)</sup>

백상공이 아들의 적강 사연과 숙영과의 천정인연에 대해 무시하는 것도 나름

23) “벌어서 자식을 낳을 수만 있다면 천하에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라는 인술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사대부들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작품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비단 사대부들만이 아니라 초월적 힘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실 논리 속에서 그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지니고 있던 당대 세속인들의 보편적 인식이 이러한 인술의 이면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4) 이상익, 1994 「유교에 있어서의 聖과 俗」 『종교연구』 10, 70-71면 참조.

대로 이유가 있다. 선군의 출생시 선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부인 정씨이고 백상공은 이를 다시 전해들었을 뿐이다. 자신이 직접 천상의 존재를 대면하고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의 無信을 이율배반적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작품 속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비현실적 세계를 신뢰하지 않는 그의 평소 태도로 미루어 부인의 전언을 꿈이나 환상 정도로 치부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성을 드리고 부인의 얘기에 부응하여 아들의 이름을 선군이라 짓는 태도는 현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구복적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즉 백상공은 초월적 존재를 믿지는 않으나 현실구복적인 차원에서는 그에 기대는 것도 손해될 것이 없다고 보는 세속인의 보편적이고 편의적인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백상공의 현실적 사고 앞에서 천상의 논리는 계속 무시되거나 거부당한다. 하늘이 점지해 준 인연을 무시한 채 새로운 혼처를 구하고, 꿈에서 숙영낭자를 만나 상사병이 난 아들에게 “너를 낳을 때 하늘에서 한 선녀가 내려와 이리이러하더니 그 낭자가 바로 숙영낭자로다. 그러나 꿈은 모두 혗된 것이니 그 낭자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잘 먹거라.”라고<sup>25)</sup> 일축해 버린다. 선녀의 계시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꿈처럼 혗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태도 속에는 완강한 현실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초월계의 신이함이나 성스러움 등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천상인연이나 운명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현실의 생존을 조건 짓는 물질적 상징으로서의 ‘밥’인 것이다.

백상공이 계시나 꿈 등을 허상이라고 무시하면서도 숙영이 전해준 금동자와 그림 등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고 이를 통해 형성된 富를 누리는 것은 그 물건들이 확인 가능한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상인연인 숙영의 존재를 무시하며 아들을 미친 것으로까지 치부하던<sup>26)</sup> 태도와는 달

25) 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17면.

26)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낭자가 와서 옥연동으로 찾아오라 하고 갔나이다. 제 병세가 위급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을 찾아가보는 게 좋겠나이다.’ 이에 부모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무래도 네가 미친 모양이로다.’하고 선군을 불잡아 앓히며 못 가게 하는지라 (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19면).”

리 막상 선군이 숙영을 데리고 오자 큰 반대 없이 반갑게 맞이하여 며느리로서 받아들인다. 즉 숙영이 꿈이 아닌 현실적 존재로 등장하자 비로소 두 사람의 인연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백상공이 이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 차원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데까지일 뿐 천상의 인연이라든가 숙영의 선녀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숙영이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자식들을 낳아 세속 부녀의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만 그 존재 의의를 인정할 뿐이다.

따라서 아들에게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조상의 이름을 빛내도록 종용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백상공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들이 없는 숙영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며느리의 정절을 의심하는 것도 현실 맥락에서 보자면 부당한 태도가 아니다. 며느리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들어 백상공의 성급한 태도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숙영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육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이자 근본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현실 중심적 사고 속에서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들을 중시하는 백상공에게 근본도 모르는 며느리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지니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더군다나 숙영과 선군은 당대의 혼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부모의 허락 없이 육체적 결합을 이루었므로 그 결연과정 자체가 숙영의 숙녀 이미지를 훼손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백상공 입장에서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백상공은 나름대로는 신중한 태도로 며느리의 정절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가 처음부터 무조건 의심을 한 것은 아니다. 두 번에 걸쳐 며느리의 방에서 훌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후 일단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숙영이 남자가 아니라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둘러댄다. 이에 백상공은 매월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비로소 매월에게 며느리를 감시하라고 지시한다. 이처럼 백상공이 숙영을 의심하는 과정은 현실적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오히려 의심의 동기를 제공한 것은 밤에 몰래 돌아온 선군과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숙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매월과 돌쇠의 모략으로 현장증거까지 목격하고 비로소 백상공이 분노를

폭발한 것이므로 그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sup>27)</sup>

백상공이 오해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데에는 철저히 확인 가능한 현실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 숙영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시오나”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천상의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상공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재상가의 규중에 외간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로다.”라며<sup>28)</sup> 현실의 윤리를 들이댈 뿐이다. 백상공이 아들의 출생시에 들었던 계시나 꿈의 신비함, 숙영의 근본에 대한 궁금증 등을 토대로 조금만이라도 비현실적 상상력을 허용했다면 의심을 거두고 비극적 파탄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숙영의 죽음 후에도 백상공의 현실 중심적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옥비녀가 바위에 꽂히는 신기한 현상과 숙영의 가슴에 꽂힌 칼이 빠지지 않고, 시신이 썩지 않거나 관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기괴한 장면들을 목도하면서도 백상공이 이를 통해 천상 세계를 확인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이 숙영을 따라죽기라도 할까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급급할 뿐이다. 자신이 천상의 계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자의식이나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백상공은 숙영 대신 미모의 임소저와 새로운 혼인을 추진함으로써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삼으려 한다. 이러한 행위는 초월계의 신성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인간의 애정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물질적 국면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백상공이 지닌 물질적 세속주의의 극단을 확인케 해준다.

백상공이 현실적 인물로서 세속적 가치에 입각하여 숙영을 오해하기는 했어도

27) 백상공이 며느리를 끌어내어 심하게 매질을 하며 모욕을 준 것은 예의를 잊은 과도한 행위로 비난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식의 생사여탈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가장권을 인정하였던 당대의 세속률을 고려할 때 정조를 잊은 며느리에 대한 단죄를 폐악한 행위로만 치부할 수도 없을 듯하다. 당대 사회 가부장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지하, 2014 「고전소설 속 궁정적 가부장의 형상화를 통해 본 담당총의 인식 차이」『정신문화연구』 37권 4호를 참조할 수 있다.

28) 이상구, 2010 『숙향전, 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36면.

그의 행위를 악행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만큼 작품 내에서도 다시 살아난 숙영의 입을 통해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천상에서 지은 죄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이 천명 아닌 것이 없나이다.”라고<sup>29)</sup> 표명함으로써 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백상공이 천상존재인 숙영과 아들의 인연을 무시한 대가로 아들과 손주들을 잃음으로써 가문의 번성과 가족의 단란함이라는 세속적 즐거움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큰 것이라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백상공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세월이 흘러가니 슬픔도 점점 사라지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후 여생을 한가롭게 보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으로 처리될 뿐이다.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백상공이 현실적 가치관에 변모를 보인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의 흐름 속에 슬픔을 달래면서 여전히 현실적 삶에 적응하여 생을 온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상공은 철저히 현실 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속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세속 질서에 오롯이 편입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의 애정사에 개입하여 결국 숙영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세속적 인물인 백상공이 천상의 선녀인 숙영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 숙영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 聖과 俗의 갈등에서 俗이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지상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패배한 숙영이 천상으로 돌아간 것에 비해 백상공에게는 별다른 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숙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백상공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질서는 여전히 온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본에 따라서는 다시 살아난 숙영이 백상공 부부를 일정 기간 모시다가 승천하는 내용이나 선군이 임소저까지 아내로 맞아 부모를 봉양한다는 내용도 존재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세속적 가치들이 더욱 강하게 응호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

29) 위의 책, 264면.

### 3. 聖俗의 매개항으로서의 ‘사랑’과 그 한계

〈숙영낭자전〉의 이와 같은 聖俗 갈등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인해 성스러운 영역에 머물던 숙영이 俗의 세계로 들어옴으로써 사랑이 聖俗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聖俗의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사랑은 聖과 俗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한 채 문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작품에서 천상인인 숙영과 세속인인 백상공 사이의 聖俗 갈등 과정에 중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남주인공인 백선군이다. 그는 천상의 존재였으나 지상에서 인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숙영이 환생의 과정 없이 천상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천상에서 적강하였으나 천상의 기억을 잊어버린 존재라는 설정이 그의 聖과 俗의 중간자적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백선군에게 있어서 제일의 가치는 숙영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선군이 세속의 가치들에 무관심한 채 오로지 사랑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천정연을 통해 맺어지는 여타의 소설 속 인물들과 비교해도 유별난 면이 있다.

그의 애정 추구를 천상적 가치 지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성스러운 천상의 공간에서 서로 희롱한 죄로 지상으로 추방당한 것 자체가 남녀의 사랑이 천상에서 궁정하는 가치가 아님을 입증한다. 인간 본연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사랑은 俗의 속성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에 맹목적인 선군이 속화된 인간의 감정에 몰두하는 가운데 천상의 기억과 신이한 능력을 상실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천상인으로서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 자질을 지니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군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사랑의 성취일 뿐이다. 숙영과의 인연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숙영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도를 닦으며 일정한 시기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선군의 경우 꿈속에서 한번 만난 여인에게 상사병이 들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몰입한다. 숙영도 결국 선군의 열렬함에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고 첫 만남에서 관계를 맺은 후 그동안의 수련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선군을 따라 세속의 세계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선군의 열렬한 사랑은 세속적 질서 안에서도 환영받는 가치는 아니다. 선군이 추구하는 애정에 기반한 단란한 삶은 부친 백상공이 기대하는 입신양명을 통한 효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기자치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공명을 성취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백상공의 입장에서는 선군의 사랑도,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숙영도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세속의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리는 선군의 태도는<sup>30)</sup>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열정적 사랑이란 사회적 질서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것이다.”라는<sup>31)</sup> 언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적강형 소설의 대부분에서 주인공을 천상적 존재로서 신성성을 지닌 것으로 그리면서도 사실은 그 신성성이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의 능력과 세속적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현실적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 이를 신이한 존재가 지닌 초월성이라는 개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백선군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세속적 욕망이 거세되었다고 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취급되며 그 빈자리를 오로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차지하고 있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초월한 성스러운 가치도 아니고 물질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세속적 가치도 아니면서, 인간 욕망에 근거하되 고귀함을 지닌 새로운 가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백선군이 천상인이면서도 사랑으로 인해 신성성과 신이한 능력을 상실한 채 지상에서도 여전히 천상존재인 숙영과의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모습은 의미심장하다. 절대성에 기반한 성스러운 유토피아를 상실하였으나 물성화된 합리주의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세속적 가치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대안으로서 사랑이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가 세속적 공명을 마다하고 숙영과의 애정에 몰두하는 것은 세속

30)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조상의 이름을 빛내라는 부친의 요구에 선군은 “우리 집이 천하에 다시 없을 만큼 부유하고, 노비 또한 천여 명이나 되며, 벼슬아치들이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귀와 눈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제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시나이까?”라고 반발하며 세속의 공명을 쫓기 위해 숙영의 곁을 떠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위의 책, 225면).

31) 앤소니 기든스, 2003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76면.

적 가치 지향에 대한 거부이자 반발일 수 있다.

우리 소설사에서도 사랑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구체화되지 못하는 대안의 대체제로서 호명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전기소설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초기 전기소설들에서 현실과의 마찰 속에서 그려지던 맹목적이고 열렬한 애정의 추구가 17세기 이후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평범화되는 가운데 남녀 간 사랑의 구현 양상 역시 애정 자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당대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인식과 규범에 따라 양식화되는 경향이 짙어졌다.<sup>32)</sup> 이러한 변모를 고려할 때 19세기에 가까운 지점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숙영낭자전〉의 주인공이 당대의 경향성을 벗어나 애정 지상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백선군에게서 발견되는 사랑의 진지성이나 순수성은 비슷한 시기의 작품에서 그리는 유희적 사랑이나<sup>33)</sup> 훼절형 소설들에서처럼 성적 욕망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춘향전〉처럼 사랑을 통해 현실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작품과도 차별화된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시대적 흐름이나 가치와 조화롭게 일치되지 않는다. 선군과 숙영의 열렬한 사랑이 그러한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저항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숙영의 고난과 죽음은 사랑이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군의 사랑이 숙영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두 번씩이나 남몰래 집으로 돌아왔던 행위가 숙영을 위험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열정적 사랑의 맹목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속의 질서와 충돌하여 패배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은 숭고하나 그러한 사랑이 세속적 위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숙영낭자전은 사랑의 비극성을 드러낸다. 비록 작품의 결말에서 숙영의 누명이 벗겨지고 죽은 숙영이 재생하여 선군과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낭만적 보상일 뿐 현실은 숙영의 죽음으로 인한 사랑의 미완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숙영의 재생과 천상으로의 복귀는 그런 점에서 사랑의 승리에 기반한 행복한 결

32) 이민희, 2013 「애정 전기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52, 52-54면 참조.

33) 19세기의 애정전기소설인 〈절화기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말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오히려 운명적으로 내정되었던 숙영과 선군의 열렬한 사랑조차도 현실 속에서 제대로 성취되기 어려웠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숙영과 선군이 성스러움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세속적 삶에 적응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현실의 세속적 욕망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세속 질서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 사랑은 절대성과 신이성, 성스러움으로 표상되는 정신적 가치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그 대처 지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존재들의 대안적 선택지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숙영낭자전〉의 사랑은 세속화에 대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현실의 문제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34)</sup> 세속화의 힘을 거스르는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4. 聖俗 갈등과 존재론적 고뇌

이 작품에서 그리는 聖의 세계는 옥황상제와 선관, 선녀로 표상되는 도선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sup>35)</sup> 그러나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할 때 특정 종

34) 이 작품이 효와 애정의 대립을 통해 중세 체제의 모순과 질곡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경우(김일렬, 앞의 논문), 자유연애라는 금기코드를 통해 폐쇄적 사고의 유교적 애정관에 정면대응하고 있다고 본 경우(김미령, 2014 「금기」코드로 풀어보는 〈숙영낭자전〉의 여성 주의적 시각』『한국언어문학』 90) 등도 사랑이 현실의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하겠다.

35) 선행 연구에서도 이 작품이 국조신화와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선사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윤경수, 1999 「〈숙영낭자전〉의 신화적 구성과 분석: 국조신화의 3개 모티프를 중심으로」『연민학지』 7). 한편 김일렬은 도선적 상상력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현실을 탐색하고 그 결과 이 작품이 신분 차이를 지닌 남녀의 결연을 방해하는 중세적 질곡과 이의 해소에 대해 그리고 있다고 파악하였다(김일렬, 1995 앞의 논문).

교의 구체성과는 별도로 세속적 가치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숭고함이나 정신적 가치를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聖의 영역을 상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즉 이 작품에서 문제되는 성스러움이란 이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신적 지향 일반으로 해석된다. 일원화의 논리가 완강해진 사회에서 이원적 가치 지향을 지닌 인물들이 마주치는 현실과 그에 따른 존재론적 고뇌를 그리는 것이다.

숙영과 백선군은 천상과 지상 어디에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 천상 선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상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오히려 부모 없이 근본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영의 처지나 천상의 기억을 잊은 채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세속의 부귀공명에는 관심이 없는 선군의 태도가 그들의 이러한 존재론적 고민을 드러내준다. 이들은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쫓겨났으나 지상의 질서에도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어느 쪽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채 겉도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숙영과 선군은 천상의 뿌리를 지니고 있으나 초월계에 대해 강한 지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세속의 삶에 적응하고자 노력한다. 두 사람 모두 물질과 공명으로 표상되는 세속적인 가치들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인으로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숙영과 선군이 세속의 삶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승천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숙영낭자전은 표면적인 행복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면모를 지닌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천상으로의 복귀 이면에 놓인 진실은 그들이 세속의 삶에 안착하지 못한 채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로부터 유리되었다는 것이며, 천상으로의 복귀는 이러한 존재들의 소망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숙영낭자전〉이 남녀의 열렬한 사랑과 천상으로의 복귀를 그리는 행복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미감을 짙게 드리우는 것도 이러한 존재론적 고뇌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숙영의 고난과 비극적 죽음뿐 아니라 선군의 상사병과 異界 존재로서 선군의 꿈에 개입하여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숙영의 고군분투, 어미의 죽음 앞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어린 자식들, 가슴에 칼을 꽂은 채

썩지도 않는 숙영의 훼손된 주검,<sup>36)</sup> 움직이지 않는 관<sup>37)</sup> 등 작품 곳곳에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비감의 단서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을 낭만적 사랑이야기로 받아들이기에 주저된다.<sup>38)</sup> 이 작품 속에서 사랑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님에는 동의하나 앞서 살핀 내용들로 미루어 그것이 낭만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숙영낭자전〉의 사랑은 그 비극성으로 인해 더 큰 울림을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작품이 산출된 시기의 조선 사회에서는 세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원적이고 종교적인 신성의 힘이 약화되거나 부정되는 반면 물질적 현실에 기반한 합리주의가 힘을 얻어갔다. 이런 변화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의 야담집에 등장하는 저승체험담에서 이전 시기에 보여주었던 귀신과 저승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약화되고 현실의 생활논리에 기반한 합리성이 강화되었다.<sup>39)</sup> 또한 민중의 무속에 대한 신앙성이 약화되면서 무녀의 권위가 추락하고 무속의례 역시 세속화되어 간 정황이 〈홍부전〉이나 〈변강쇠 가〉 등의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sup>40)</sup>

〈숙영낭자전〉은 이러한 시대의 고민을 그리는 작품이다. 성스러움의 표지를 상실한 채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물질 너머의 고귀한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존재들의 고민을 대변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물질적 욕망에 기반한 세속적 가치와는 다른 차원의 정신적 가치로서 선택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세속의 물질적 위력을 극복하기에는 역부

36) 정인혁은 봄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숙영의 죽은 몸이 주는 기괴함에 의해 비극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숙영이라는 천상적 존재가 속한 천상계의 영향력이나 권위가 인간계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정인혁, 앞의 논문, 202-207면).

37) 우리의 전통 설화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관’은 죽은 자의 끝을 상징하는 기표로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38) 이유경은 이 작품이 중세적 가부장제의 결혼 방식을 거부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性과 결혼을 그리는 낭만적 사랑이야기이며 이는 당대 여성독자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이유경, 앞의 논문, 161면).

39) 소인호, 2009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초기 소설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7, 119면.

40) 경일남, 2013 「고전소설의 무녀 활용과 면모 양상」 『인문학연구』 91, 19-20면.

족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랑은 세속의 영역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천상 혹은 옥연동이라는 미지의 가상공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특히 천상도 지상도 아닌, 중간계의 신비로운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옥연동’의 설정은 주목할 만하다.<sup>41)</sup> 천상과 지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또 속할 수 없는 공간으로서의<sup>42)</sup> 옥연동은 성과 속의 중간 지점에 선 존재들의 고뇌와 염원이 상징적으로 압축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숙영낭자전〉의 이본 중 곧바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결말을 지닌 이본이나<sup>43)</sup> 지상에서 백상공 부부를 모시고 백년해로한 후 천상으로 복귀하는 내용을 보이는 이본에<sup>44)</sup> 비해 숙영이 재생 후 선군과 자식들만 데리고 옥연동에 거하는 내용의 이본이 〈숙영낭자전〉이 지니는 聖俗 갈등의 의미와 존재론적 고민을 가장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다.

## 5. 나가며

〈숙영낭자전〉은 신성한 세계가 부정되고 세속적 현실주의가 강해지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성찰과 존재론적인 고민을 담아내고자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비단 조선후기의 사회와 관련되는 것만은 아니다. 聖과

41) 선행연구에서도 옥연동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주목한 바 있다. 김선현은 옥연동이 지상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천상의 절대적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탈이념적 공간이자 여성의 해방공간으로서 유교적 폐쇄성을 지닌 남성공간으로서의 안동과 대비된다고 하였다(김선현, 2011 앞의 논문, 303-304면). 서유석 역시 옥연동을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여성주체적 장소이자 이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유석, 앞의 논문, 194면).

42) 옥연동은 숙영이 천상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머무는 공간으로서 징벌적 이미지를 지니며, 낙원을 상실한 사람들의 도피처라는 점에서 천상이 관할하기는 하나 성스러움의 영역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곳이다.

43) 이 계열의 경우 현실 세계와의 화합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계열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본의 목록은 김선현의 논문에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김선현, 2014 앞의 논문, 131-132면).

44) 이 계열은 숙영이 재생 후에도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머물고 선군이 임소저와도 혼인하여 다 함께 부모를 봉양하며 세속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중심의 현세지향적인 세속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俗의 중간자로서 숙영과 선군이 겪는 고난과 고뇌는 빨은 땅을 디디고 있으나 머리는 하늘을 향해 두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을 은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속의 물질적 욕망을 꿈꾸는 것도, 성스러움에 대한 지향을 지닌 것도 다른 존재와는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특징이지만 양자가 조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숙영과 선군은 聖의 세계에서 이탈하여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시기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들의 슬픈 이면을 포착하고 있다. 그 점에서 〈숙영낭자전〉은 비극적 인식 속에 진지한 성찰을 이룬 작품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숙영낭자전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당대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숙영의 죽음 이후의 서사가 독자들의 취향과 의식에 따라 어떻게 변개되고 있는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숙영이 죽은 후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버리거나 옥연동에 머무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현세의 세속적 지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본이 전체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sup>45)</sup> 고려하면 당대의 다수가 이 작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숙영의 재생을 그리지 않고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작품을 종결하여 신이성을 제거한 채 현실적인 차원에서 비극성을 극대화한 이본도 존재한다.<sup>46)</sup> 이 경우 일원론에 입각한 현실적 지향성은 강화되었으나 세속의 윤리와 모순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맥락에서 당대의 시대적 모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개진한 것이라고 하겠다.

숙영이 재생 후에도 지상에 머물면서 백상공 부부와 화합하여 효성을 다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 가장 세속적인 지향을 보이는 이본으로서

45) 김선현, 2014 앞의 논문, 131-132면의 〈표〉를 참조하면 이러한 내용의 이본이 40종이고 숙영이 재생 후에도 지상에 머물면서 백상공 부부를 봉양하는 내용의 이본이 29종으로 되어 있다.

46) 김광순 소장 24장본이 이에 해당하는데 김일렬은 이러한 결말이 앞부분의 이원적 세계의 설정을 무시하고 일원론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세계관의 유기성은 훼손하였으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강화시켰다고 평하였다(김일렬, 1999 앞의 논문, 163-164면).

앞의 이본들이 지닌 비극적 미감의 자리를 낭만적인 행복한 결말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경관본과 활자본의 경우 모두 옥연동 연못에서의 水葬을 생략한 채 숙영이 빈소에서 곧바로 재생하여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화, 상업화된 이본일수록 보편적 세속주의에 더 경도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되는 가운데 이 작품이 聖俗의 갈등을 통해 제기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데에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의 다양성이 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할 만한 흥미로운 과제라고 하겠다.

주제어 : 〈숙영낭자전〉, 성과 속, 사랑, 세속적, 비극성, 존재론적 고민

투고일(2015. 10. 20), 심사시작일(2015. 10. 21), 심사완료일(2015. 11. 5)

### 〈Abstract〉

The meaning of the conflict of the value between holiness and secularity in <Sookyoungnangjajeon(숙영낭자전)>

Lee, Jee Ha\*

<Sookyoungnangjajeon> is affectional novel estimated to be created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However, in the way that this novel describes the heroine's death and resuscitation in the contrary of the other affectional novel, so I intend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meaning of the death,

Sookyoung and Paeksungoona, the heroine and hero, as the celestial maiden and official, descended to the human world owing to the sin of their love, and they continued to be closely bound up together by Heaven's will. However, Paeksanggong, Sungoona's human father, had doubts about Sookyoung's chastity and finally led her to die. This story contains the conflict of the value between holiness and secularity. Sookyoung, a celestial maiden, could not adapt herself to the secular life and met her death. It would be to show the power of secular value.

On the other hand, the love has the meaning as a new value which does not belong to any part in the middle between holiness and secularity. However, this work shows the end which the love of the spiritual value met a tragedy by material secularism. It might be possibility of just the romantic wish that Sookyoung revived and ascended to heaven with Sungoona.

This novel reflects the social aspect which holy world was denied and then actualism was getting stronger, and describes the agony of human resisting secularization. In this point it is worthy to be evaluated that <Sookyoungnangjajeon> achieves the serious introspection in the tragic perception.

**Key Words** : <Sookyoungnangjajeon>, holiness and secularity, love, secular, tragedy, ontological agony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